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8호

###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 결과

**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동규 노컷뉴스기자

### 체육단체장 연임규정에 대한 재논의 시급

**"마음만 먹으면 3선, 5선까지도 가능"...공정하지 못한 체육 단체장의 연임 규정**

이준희 KBS 뉴스기자

### 중부일보 오피니언

**[이심전심] 축구경기를 보면서, 뭐가 불편했었던 걸까요?**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 법원에 지필 반성문 제출..혐의 인정

**"해킹 아니고 배신감에 혼내주려"...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박예진 뉴시스기자

###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입장권 수익 12억..상품 판매 2.6억**

박대로 뉴시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회, 인권 보호 과제 88% 완료했다지만 '미완료 12%가 핵심'

노컷뉴스  
동규 기자

2024.02.22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 과제의 완료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12%의 미완료 과제는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의 미완료 과제는 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유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협력 강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21일 대한체육회의 '2023년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 추진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립한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안)에 따른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 결과 이날 현재 14개(88%) 과제를 완료했다. 미완료 과제는 2개(12%)인 상황이다. 2개의 미완료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이다.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 과제의 경우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해 명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故) 최숙현 사태' 이후 체육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 됐음에도 미자격자(국가 자격증 미보유자) 규모는 여전히 등록 지도자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25일자 보도·[단독]'故 최숙현 잇었나' 미자격 체육 지도자, 여전히 1만5000명)

'고 최숙현 사태'는 지난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의 가혹 행위에 따른 자살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 체육회는 지도자 정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도자로 등록·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직 지도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및 제도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규정 시행 시기를 2027년까지로 3년간 유예했다. 규정 시행 시기 연장에 따라 결국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미완료 과제로 남게 됐다.

체육회는 이 과제를 장기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 오는 2026년까지 40%에 달하는 미자격 체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계도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자 자격 현황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도자 자격 현황 파악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복안이다.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제5조)에 따라 회원 단체가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제 추진 결과 이날 현재 88개 회원 단체(정·준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 체육회 포함) 중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완료한 단체는 모두 61개(69.3%)인 상황이다. 이는 27개의 규정 제정 미완료 단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결국 미완료로 남은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와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등의 2개 과제는 제반 여건상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대한체육회 공정 체육실 관계자는 "미완료한 2개 과제 중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는 규정 시행이 3년 유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완료하지 못했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미완료 과제인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는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적극 행정을 하겠지만, 일부 회원 단체들의 인력 미비 등 여러 여건상 중장기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빠른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체육회의 2023년 체육인 인권 보호 계획과 관련한 16개 세부 과제는 3개 추진 전략에 따라 마련됐다. 시스템 강화(인권 보호 확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지도자 등록 자격 명확화 및 관리(미완료)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제도 획득 등 2개다.

문화 확산(인권 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국대 스마터즈 활용 온라인 인권 홍보 ▲스포츠 인권 홍보 부스 운영 ▲스포츠 인권 공모전 개최 ▲스포츠 인권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 ▲스포츠 인권 교육 다각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제도 실시 등 8개다.

협력 강화(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인권 의식 확산)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는 ▲스포츠 윤리센터 업무 협력 강화 ▲인권 유관 단체 업무 협력 강화 ▲체육 단체 인권 지킴이 운영 ▲회원 단체 스포츠 인권 자료 배포 ▲회원 단체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미완료) ▲회원 단체 인권 보호 준수 체크 리스트 관리 등 6개다.

# “마음만 먹으면 3선, 5선까지도 가능” ... 공정하지 못한 체육 단체장의 연임 규정

## 앵커

아시안컵 후폭풍으로 사퇴 논란에 휩싸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육 단체장의 연임 규정에 이해못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계속 회장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4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 "(2018년 당시)회장 임기를 3연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연임에 제한을 두지않는 배경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연임 허용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이 3선 이상에 도전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정위원 선발은 총회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될 경우, 회장이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공정위원들의 해촉 권한도 체육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지난 6일 이사회 발언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현재 우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제가 3선이 아니라 5번 나와도 문제없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3선을 하든 5선을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체육회 연임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우/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본인이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제척이나 회피 규정이 없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규정이 적합한 지 절차가 맞는지 여부는 살펴볼 생각입니다."]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3선 연임까지 엄격히 출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편적인 기준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공정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단체장의 연임규정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 [이심전심] 축구경기를 보면서, 뭐가 불편했었던 걸까요?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축구, 야구 등 인기 스포츠종목의 경기는 시즌 외에도 열기가 뜨겁다. 국내외 경기 등 관심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은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매력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옹호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일부의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 영향을,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의 다양함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의 경기는 끝났지만, 다음 경기를 위한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과도하게 뜨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이 열리던 시기에,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어서, 경기 소식을 모르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누군가 "축구 어떻게 되었어요?" 경기 결과를 묻는 말에 뒤늦게 인식을 했습니다.

TV를 통해서, "선수이기 전에 한 인간... 선수들 보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국가대표팀 주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 맞춰보기도 하고, 못 본 경기결과는 통신정보매체를 통해서 챙겨보았습니다. 축구경기는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을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마무리 응원의 토닥임이나 다음을 기약하기 보다는 물고 뜯는 승냥이의 아귀다툼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분명, ‘2023 AFC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국민이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나, 선수들 개개인에게 화풀이를 넘어서서 일부 선수들에게는 공감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언론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대한민국 4강전이 있기 전날 저녁의 사건은, 일파만파로 국내 언론통신매체를 통해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들, 그 전까지 그렇게도 치켜세워주던 선수를 몰지각하고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워가는 분위기는 결코 문제해결보다는 마치 선수 개인에게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도 합니다.

시시각각 온라인을 메웠던 뉴스는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느끼게 했습니다.

일상에서, 좋아하는 음식만을 빼먹듯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편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선별적으로 어떤 뉴스를 선택해야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지?’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잘못 된 정보들이 없어지고 포개져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둔갑을 했던 상황들을 단순히 언론통신매체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넘어서서 직접 그 사안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을 몸소 겪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줄의 사실(진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구조적 문제에서 국가대표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소속기관들이 거기까지를 생각하지 않거나, 흘려보내는 상황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주는 의무와 책임감은 막중하고, 그 무게감은 잊은 채 누리려고만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국가대표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기간 중 발생했던 여러 상황은 반드시 잘 정돈하여, 보호하고, 안전하게 잘 정비하고, 일부 국민들의 비인권적인 관람문화도 이제는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헌장’의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 "해킹 아니고 배신감에 혼내주려" ...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입장권 수익 12억... 상품 판매 2.6억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지난 25일 남자부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입장권 수익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탁구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이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뒤 재유치하는 우여곡절 끝에 대회가 성사됐다. 40개국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 등 2000여명, 그리고 150여 개국에서 온 회의 참가자들이 대회 참가했다.

흥행에도 성공했다. 단기간에 연이어 경기를 치르는 탁구 종목 특성상 평일 경기가 많았지만 3만 명 넘는 관중이 벅스코 특설경기장을 찾았다. 4강전과 결승전이 열린 24일과 25일에는 입장권이 매진되며 4000석 규모 관중석이 꽉 찼다.

입장 수익은 약 12억 원을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1경기장과 2경기장 사이 마련된 팬존에서 판매된 상품은 약 2억6000만원 어치가 팔렸다.

대회 기간 벅스코 인근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600% 증가하고 인근 숙박업소들은 비수기임에도 객실 예약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의 남자 준결승전은 유튜브 동시 접속자 4만 명을 기록했다. 현장에 왔다가 표를 구하지 못해 따로 설치된 공간에서 탁구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한민족의 손으로 우리 땅에서 개최한 최초의 전국 대회는 1928년 열린 제1회 전조선탁구선수권대회다. 세계인들과 더불어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러내면서 한국 탁구 100년 역사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퍼즐을 채워 넣었다"며 "부산에서의 환희와 감동을 바탕으로 한국 탁구는 이제 세계 탁구 무대의 확실한 주역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美 여고 농구경기서 트랜스젠더 선수로 부상자 속출 '논란'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072>

40조 시장의 리그, 최고를 위한 투자가 GOAT '메시'를 키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5500002197?did=NA>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6\\_0002639789&cID=14001&pID=140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6_0002639789&cID=14001&pID=14000)

청주시, 다양한 생활체육 시책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01645>

노원구, 권역별 실내체육센터 '속속'...상계센터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083300004?input=1195m>

충남교육청, 올해 '학교체육 기본 방향' 발표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4424>

광주시교육청 '2024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개최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560>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창립총회 열어... '이미지 개선 나선다'

<https://www.besteleve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53>

KOVO 상벌위, 페퍼저축은행 '후배 괴롭힘' 의혹 결론 못 내...27일 재개최

<https://www.stoo.com/article.php?aid=91898822241>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